

올림픽과 大氣保全 대책



金亨徹 / 환경청 대기보전국장

서울올림픽의 개최일자가 정확히 앞으로 200년을 앞두고 있다.

오늘날의 올림픽대회는 한갓 세계각국 운동선수들의 競技技倆을 겨루는 차원을 넘어 참가국들의 국력이 종합적으로 부딪쳐 국익을 도모하는 角逐場이요 政治·外交·文化交流의 現場이며 交易增進을 위한 物貨의 綜合展示場이기도 하다.

그러면서도 올림픽은 YES로 要約되는 人類의

大祝宴이다.

그것은 올림픽이 본래 體力을 중심으로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세계의 젊음 (Youth)이 한자리에 모여 신기록을 향한 경기 (Sports)를 펼치게 되고 신기록 수립에는 쾌적한 환경 (Environment)이 절대적인 요체이기 때문이다.

全人類의 祝宴인 올림픽이 이렇게 環境과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특히 大氣環境의 쾌적성은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다. 그것은 경기자에게 최적의 신체조건을 형성하여 주기 때문이다. 여기에 IOC 등 올림픽관계자들이 서울올림픽 경기기간중의 大氣環境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본다면, 서울올림픽은 대기환경보전면에서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서울올림픽을 쾌적한 대기속에서 치름으로써 올림픽 그 자체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함은 물론, 이를 계기로하여 우리나라의 대기환경이 지속적으로 쾌적성을 유지토록 함으로써 이 땅에 사는 우리국민의 복지를 이룩하는 데 밑바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80년대에 크게 눈뜨기 시작한 대기보전대책은 81년 바덴바덴의 서울올림픽개최결정 이후 급속히 강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어온 황산화물의 저감을 위하여 올림픽이 개최되는 금년의 오염수준을 전국적으로 환경기준치보다 훨씬 양호한 상태로 유지할 것을 목표로, 첫째 저유황유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올림픽 이후에도 황산화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脫黃設施의 설치를 추진중에 있다. 마침내 90년에 가면 우리는 필요로하는 모든 油類가 黃분이 선진국처럼 적은 저유황유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올림픽기간중에는 필요량을 충분히 저유황유로 공급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있다.

둘째, 청정연료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황산화물의 오염을 극소화하고자 한다.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할 때 앞으로는 청정연료인 LNG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生活水準의 향상에도 걸맞고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도 제대로 갖추는 환경을 이룩하는 길이다.

올림픽에 대비하고 향후의 대기질을 계속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그동안 막대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금년 9월부터는 서울의 대형빌딩은 대부분 유황분이 거의 없는 LNG로 필요한 에너지를 얻게 된다.

그렇게되면 올림픽의 대기환경은 당초에 기대한 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 기회에 더 말하고자하는 것은 황산화물 오염의 저감을 위하여서는 煉炭對策이 장래의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연료의 소요는 늘어날 것이 확실하므로 연료중의 유황분을 줄이는 것이 황산화물대책이 되는데, 다른 연료는 대책을 마련하였지만 유독 煉炭만은 서민연료라는 현실때문에 강제적인 대책이 어렵다는 점이다. 그러나 煉炭價格은 점점 비싸지기 마련인 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더불어서 길게보면 개인에게도 결코 크게 이익이 될 수 없다는 점이 확실할진대 적어도 대도시의 비교적 힘이 미치는 市民은 가급적 빨리 煉炭에서부터 他炭料로 熱源을 바꾸는 것이 개인과 가정 그리고 공익을 위하여 바람직하다는 것을 指摘하고 싶다.

다음은 먼지대책이다. 우리의 맑은 가을 하늘은 올림픽개최에 더할 수 없는 푸른하늘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盡人事待天命이라고 먼지대책은 충분히 강구되어야 한다. 그것이 곧 올

림픽 이후에도 우리의 환경을 먼지오염에서 해방시키는 길이다.

앞에서 예로든 淸淨燃料등 연료대책과 녹지의 피복 및 도로청소등은 먼지대책으로 벌이는 공공사업이라면 공장의 집진시설과 비산먼지방지시설의 설치는 그에 상응하는 企業體의 義務라 하겠다. 언젠가는 이룩해야할 먼지없는 환경을 이룩하기 위하여 국민과 기업체 그리고 정부가 서울올림픽을 맞이하면서 총력을 기울여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대도시를 말하면 언제나 자동차의 홍수를 연상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공통된 의식사항이다. 자동차는 그 편리성 때문에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급격하게 증가한다.

우리도 급격한 자동차의 증가를 실감하면서 매일매일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배기가스로 인한 도시오염은 매우 심각하다. 물론 L.A 같은 정도는 아니지만 도시스모그현상을 체험하는 상태에 도달하고 있다. 저공해자동차의 생산 보급은 그 해결을 위한 원천적대책이다. 하지만 경유자동차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스모그방지를 위하여 앞으로는 경유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대책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서울올림픽은 바로 눈앞에 다가왔다.

그동안 각계각층에서 그 성공적개최를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금까지 공들여온 준비가 착실히 열매를 맺도록 보살피고 가꾸는 정성을 쏟는 것이다.

올림픽을 맞이하는 우리 환경인들도 그동안 남다른 정성을 그 준비에 기울여왔다. 이제 그 정성이 꽃피는 것은 얼마남지않은 기간에 우리가 얼마나 힘과 수고를 더하느냐에 달려있다.

부디 단결된 힘을 한데모아 우리가 당초에 기대한 목표, 즉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의 기여와 항구적인 쾌적환경의 구현"이 이룩되도록 제 6공화국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딛자. *